ENGLISH LANGUAGE
LANGUAGE INSTINCT
MICHEL FOUCAULT
POST-MODERN
G. DELEUZE
CRITICISM
SELEUZE
CRITICISM
ALTINIAMON A
CONTROL OF THE TOTAL OF THE TOTAL

Pincette

[pɛ̃sɛt]

ENGLISH LANGUAGE ACADEMY





한 번의 강의로 증명하겠습니다.

That's the only alternative

SPACE DESIGN

공간디자인

- 미스터 핀셋 학원 창문에는 광고시안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절제된 표현으로 남향 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채광과 소나무가 보이는 전망을 전부 살렸습니다.
- 아이들이 학원 어디에 앉아 있든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탁 트인 전망을 선물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 미스터 핀셋은 강의실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의 강의실로 쪼개지 않고 통으로 쓰게 하며 수익보다는 배움의 환경을 존중했습니다.
- 라운지와 상담실은 하나 하나 직접 고른 목재로 공간 디자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감성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쓰는 것이라면 단 하나의 재료라도 다르게 준비하겠습니다.



Pincette

[pɛ̃sɛt]

ENGLISH LANGUAGE ACADEMY







Mr. PINCETTE

Designed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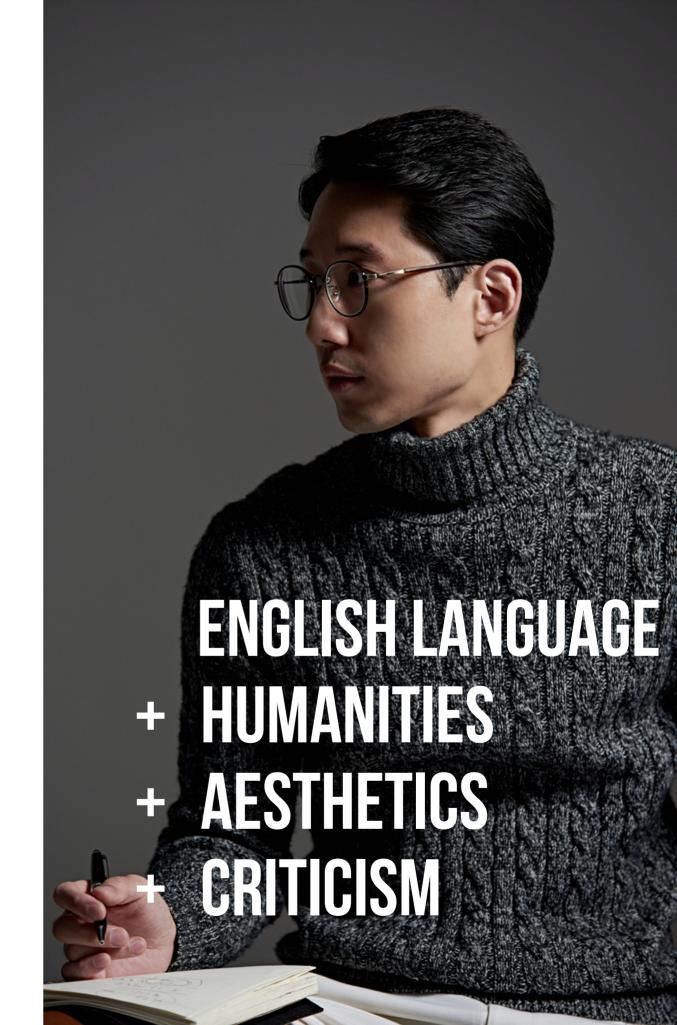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28 더 리버뷰 2층 213호

"틀에 박힌 학원 이미지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디자인 감성을 심어주기 위해 최고의 공간 디자이너 양진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Profile

- 동국대 연극영화과 졸업 | 철학 복수전공
- 동국대 영화학 석사
- 신일고 ETS주관 토익경시대회 1등
- 2002년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만점
- 대학 재학중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대표강사(1타 강사) 로즈리에 채용되어 현장강의 (노량진/신촌/강남/강북 메가) 보조 및 전국 온라인 수강생 대상 질문 답변 전임
- 前 로즈리의 369 구조어법끝 책 리뉴얼 전임
- 前 로즈리 EBS FINAL 모의고사 적중 예상문제 편집 전임
- 2014~2018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미학 및 비평 강의 (프랑스 칸 영화제 및 해외 유수 영화제 수상작을 중심으로)
- 2015 씨네포럼(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주관 '영화에서 역사를 묻다' 대표 발제(4.3 다시 쓰기: 영화 <지슬>과 <비념>을 중심으로)
- 2014~2018 KYMF 청소년 영화까페 모더레이터(서울 영상위원회 주관)
- 2016~2019 서울시 주관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현직 각계 미디어 전문가-청소년 제작자간 네트워크 파티 사회
- 2015 인천 백석 중학교 진로 특강
- 제10회 전북청소년영화제 관객심사단 특강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 '2018 학교뉴스제작경진대회' 설명회 아카데미 극본상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본 저널리즘 특강
- 2019 초등교사 <협력예술(영화)따라잡기>직무연수 영화인문학 특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주관)



Experience

학원장의 경험 ENGLISH LANGUAGE 언어

- + HUMANITIES _{인문-철학}
- + AESTHETICS 미학-예술
- + CRITICISM 비평-글쓰기
- = LIFE MENTOR 아이들과 나눌 智慧



마켓컬리를 통해 아침 장을 보고, 배달앱으로 야식을 시킨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 출간되면 지체없이 인터넷에서 결제한다.

은행 갈 일 대부분은 온라인 뱅킹을 통해 해결한다.

필요한 가구가 생길 경우 사진이 곁들어진 구매후기를 찾아본 뒤주문 버튼을 클릭한다.

집으로 캡슐을 주문해 마시는 일상의 네스프레소 한 잔이 매번 커피숍에 찾아가 사 마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간편하다. 그래서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한다.

정재승 KAIST 교수는 도시에는 이제 '필요해서 가야하는 곳들', '기능을 수행하는 곳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말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u>물리적 공간</u>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공학이 선도하는 지금의 생활방식은 우리에게 막강한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 사회는 상전벽해 테크노피아로 변모해 나가고, 물리적 공간에 찾아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줄어든다.

더욱이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하여 세상이 어지럽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상적 거리 개념과 그 좌표를 또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말 속의 인간(人間)은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회와 세상을 의미했다. 이제는 어느덧 바로 그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인간(人間)의 사이가 멀어지는 시대로 역전한다.

특정 공간에서 서로 직접 대면할 필요가 사라지고 제약되는 현상은 현대의 분명한 한 단면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움직임은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우리 몸과 정신이 더욱 사람을 향하게 하는 역설을 빚어낸다.

디지털 테크노피아가 잃어버리게 만든 무엇을 되찾고 싶은 심리적 저항 혹은 정신적 향수라고 할까.

첨단의 유행이 돌 때 자연스레 한편으로 복고풍이 일어나듯 물리적 대면을 제거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 내음과 정(情)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삶의 요소로 다가온다.

마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책과 영화는 인터넷으로 간편히 사서 보지만 그 감상을 보다 진하게 나누기 위해 마치 제의식처럼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모색한다.

영화 감독이나 저자와의 만남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유는 작품이 아닌 그것을 만든 사람이 나타나서다.

커피숍은 커피 맛을 음미하는 행위를 넘어 주인 손길이 깃든 공간 고유의 개성과 분위기를 마시는 곳이 됐다.

마트에 가서 사람들과 부대 끼며 신선한 야채를 고르고, 물건을 직접 담는 재미와 감각은 온라인 주문으로 채울 수 없다.

와인 동호회, 어학 스터디 같은 갖가지 모임도 지식 공유를 넘어 사람을 찾는 행위, 더 정확히는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타인과 연대하는 행위에 가깝다. 사람들은 이제 '도시 속 장소'라는 의미 기표 안에서 일상의 필요를 채우게 하고 기능을 수행한다는 일차적 기의를 삭제 한다. 대신 집에서 고립된 생활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직접적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곳, 적극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각도와 방향으로 의미의 무게중심을 옮겨간다. 그것이 미래 도시 속 장소가 갖는 부가가치의 핵심이며, 바로 그 연장 선상에 학원의 미래가 놓여 있다.

정보의 홍수속 지식은 이미 찾으면 손닿는 곳에 놓여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접속만 하면 다양한 영어 콘텐츠가 차고 넘치며 왠만한 입시 강의는 온라인으로 연계된다. 그러므로 오프라인으로 굳이 찾아가 학원에 입장하는 일은 정보(information)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What & How

오프라인, 즉 학원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사람을 대면하는 감정의 복원을 위한 '놀이'와 '친구-되기', 그 속에서 나아가 진정한 '스승-되기'로 전환해야 한다. 선생의 음성에는 지식(KNOWLEDGE)과 뉴스(NEWS)외에도 지혜(NEW VISION)가 담겨있어야 한다.

영어에서 '스승'을 뜻하는 '멘토'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Mentor)에서 유래했다.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여 20년이 되도록 귀향하지 않는 동안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곁에서 돌보며 가르쳤다. 그의 이름은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바로 '스승'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미스터 핀셋 학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뚜렷하다. 미스터 핀셋 학원장이 걸어온 길도 분명하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저 일상의 회화수준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문화유산을 실어 나르는 위대한 예술이 될수도 있다. 영화와 철학, 미학과 예술을 공부하는 일은 그 지식의 최전선과 맞닿기 위해 서구 학계의 유서 깊은 이론 틀을 영문으로 섭취하는 일과 같다.

문화 사대주의의 관점을 잠시 비켜나가기로 한다면 학원장의 발자취는 〈미스터 핀셋〉이라는 공간을 지혜의 숲으로 주조해 나가는 근간이 되어 줄 것이다.

미스터 핀셋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입시학원의 주목적인 성적과 영어실력 향상에 더해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을 함양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스승과 제자들이 얼굴을 직접 맞대고 지혜와 정을 나누는 공간,
나는 미스터 핀셋이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운양동 집 서재에서 미스터 핀셋 원장 김선욱



















"강의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강단에 서는 이의 열정이다." 미스터 핀셋의 모든 강의에는 이와같은 열정이 담길 것이다."

미스터 핀셋 교재 선임 연구원

SU MIN KIM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국제반 졸업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 영어, 독어 능통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계열 입학후 자퇴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재학
- 분당 문법특강 강사, 영어원서 리딩튜터

Table of Contents 2. Oppression faced by the main character 2.1 Religious Oppression in Ida Physical Oppression in Vier Minuter

Title	contemporar	ment of female characters as a subject in y film: with reference to the camera shots and in Vier Minuten and Ida	٩
Research Question	Vier Minuter	ent do the camera shots and angles used in (2006) and <i>Ida</i> (2013) portray the t of female characters into a subject?	(
Word Count	3,947		
Subject	Film		10
The second second		composition expresses the intimacy between the two characters (Denby). Considering tha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da had acted from her own motivation, the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wo-shots shows that the emotional bond with Wanda led Ida to turn into an active character.	
		3.2 Jenny's relationship with Kruger In Vier Minuten, Kruger is able to help her realize her passion opens her heart towards Kruger. Similar to Ida, the development	

수민양은 제가 1년동안 영화미학을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당시 제 수업 교재였던 독일 크리스 크라우스 감독 <Vier Minuten>과 폴란드 파벨 포리코브스키 감독 <IDA>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수민양 스스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국제반 졸업논문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논문의 피드백은 국제반의 원어민 선생님과 제가 참여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선생님과 제가 짚어내는 부분들은 영어표현 문장이 아닌 논문의 방향과 논리였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진단과 비판을 가지고 논제를 다시금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해온 수민양에게 영국 페미니즘 영화이론가 로라 멀비의 논문 <Visual Pleasure & Narrative Cinema(1975)>와 그 논지를 소개해주었고 이는 논문의 방향을 수정하는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향후 마지막으로 논문제목을 페미니즘 시각에 치우치지 않게 좀 더 중성적으로 다듬자 조언해주는 가운데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중요한건 글의 주제와 논지 다시 말해 내용의 독창성입니다.

일상 회화 수준의 영어에 머물지 않고 영어라는 도구로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것. 기것이 미스터 핀셋이 추구하는 진정한 영어입니다.



